

사회

# 방학 학원비 폭등 학부모 등골 땀

## 광주 학원가 선행학습에 교재비 등 적용 3월 법개정 앞두고 편법 인상 단속 손바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지역 일부 학원에 선행학습을 위한 초·중·고등생들이 몰리면서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려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교육청은 부족한 인력과 오는 3월 개정되는 학원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단속 기준이 애매하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학원의 수강

료는 한 과목당 1분에 65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루 1시간, 20일 동안 하면 1과목당 한 달 수강료는 7만8000원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점사)지도비, 학원운영비 등을 적용해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려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유명 학원들은 수요 공급의 원칙을 내세워 1과목당 2~3배 이상의 학원비를 받고 있다.

겨울방학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비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중3 자녀를 둔 최모(여·47)씨는 과목당 18만원에 고등학교 1학년 영어와 수학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

예비 중학생 딸을 둔 하모(여·40)씨도 노과심에 1과목에 30만원에 이르는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다. 방학 동안 선행학습 수강료는 평균 초등생 12만~16만 원, 중등생 15만~21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3월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되면 학원비 편법 인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에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비 편법 적발 건수는 지난

2009년 179건에서 지난 2010년에는 32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건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학원법에서는 그동안 학원들이 교습비 외에 각종 명목으로 받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 중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개항목을 인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도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 학원비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얼마만큼이나 줄어들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 '총인시설' 시공사 압수수색

## 광주지검 수사 급물살

1000억원 규모의 광주시 총인저감 시설 입찰과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대포 시공사로 선정된 D산업을 포함해 건설업체 수 곳의 광주·전남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연말 D사의 전남지역 사무소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N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담당 공무원과 기업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를 포착했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의심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변함 없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다소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신병처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반복되고 그 폭도 다양해지면서 광주시 안팎에서는 검찰이 로비 등 불법행위를 밝힐 구체적 단서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긴장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폭로와 언론 보도 등으로 드러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라는 원론적인 분석도 있다.

총인저감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982억원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지난해 D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480) 김종두



## 내연녀 헤어지자 요구에 차에 불지르고 살해 시도

광주광안경찰은 11일 내연녀를 유인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살해하려 한 김모(56)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경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모 교회 인근 천변 도로에서 내연녀 A(여·46)씨가 운전하던 흰색 카렌스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놀란 A씨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뒤쫓아가 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나가던 행인 김모(46)씨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두개골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결과 10여 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수년째 피해자 A씨와 교제해온 김씨는 최근 A씨로부터 "능력없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야기 좀 하자"며 A씨를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탈영병이 차량 훔쳐 인터넷 판매

○차량 훔쳐 인터넷에 팔았음  
탈영병 이모(20)씨와 친구 김모(19)씨가 경찰에 달미.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30분 사이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길거리에서 세워놓은 박모(50)씨의 외제차 1대(시가 1500만원)를 훔쳐 인터넷 중고 매매사이트를 통해 50만원에 판매하는 등 두 달여 동안 승용차와 화물차량 등 차량 7대를 훔쳐 팔았다는 혐의.

○경찰은 지난해 7월 탈영한 이씨를 군 헌병대에 인계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숨진 중학생 檢, 가해 학생 구속

경찰이 지난달 28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광주 모 중학교 학생 사망 사건 관련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같은 학교 학생 A(14)군을 폭행 및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11일 경찰이 신청한 A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군이 저지른 학교폭력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6명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총 24회에 걸쳐 32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A군이 평소 학내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일반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군의 폭행이 B군의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학교폭력 117 누르세요"

### 상담 전화 24시간 가동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가 117로 단일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홍보 화 돼가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 통일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부처별로 산재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일원화하면서 동시에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가변학급 순환교실제'로 학교폭력 막는다

### 道교육청 전국 최초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 '가변학급' 운영을 통한 인성 회복 순환교실제를 도입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가변학급 순환교실제'는 3월 개교하는 한울고교를

비롯해 중학교 3곳 등 4곳의 공립 대안학교에 마련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곡성 한울고를 시작으로 2013년 1곳(강진 군동), 2014년 2곳 등 모두 4곳에 대안학교를 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양육비 때문에... 여섯째 자식 죽인 비정한 모정

### 갓난아이 비닐봉지에 담아 살해 30대 검거 경찰, 자녀 4명 방치 가능성 커 불구속 수사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갓난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비정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1일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질식사시킨 뒤 유기한 정모(여·39)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빌라에서 홀로 딸을 출산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원룸

주차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두 차례의 이혼과 한 차례의 사별을 겪으면서 얻게 된 5명의 자녀 중 전 남편이 키우는 큰아들(21)을 제외한 다른 4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다가 양육비 걱정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매달 지원되는 약간의 보조금과 식당일 등을 하면서 14살 된 둘째딸과 셋째아들(7), 넷째딸(6), 막내아들(4)을 키

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다시 원치 않은 임신이 하게 되면 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나머지 둘째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에는 주말을 맞아 네 자녀가 모두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울지 않아 죽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네 명의 아이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커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11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 빛고을홀에서 열렸지만 방청객이 패널들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등 말발이 없이 끝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현찬기자 choi@kwangju.co.kr

# 졸속·맹탕 학교폭력 토론회

## 광주경찰청, 조현오 청장 방문 맞춰 급조 방청객 "이게 뭐냐" 패널 준비 부족 지탄

광주지방경찰청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광주 방문에 맞춰 '급조한'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가 말발이 없이 끝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동안의 현상이나 문제점 나열에 그치면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11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광주시, 10일 광주북부경찰서에 이어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조현오 경찰청장이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4~5일 만에 일정을 잡고 패널들을 섭외했다.

문제는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짧은 준비기간 탓에 심도 높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 정작 조 청장은 감가몰살로 불참,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이 대신 참가했다.

장학사, 학부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날 패널들은 ▲사고 후 처리보다는 예방 주력 ▲자식만 감싸는 부모의 이중적인 자세 개선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제고 ▲경찰의 적극적인 자세 등을 주문했으나 지금까지 거론됐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토론회가 진행되자 방청객이 패널들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고 나섰다.

광산구 자율방범대원 신모씨는 "패널들이 토론회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다"며 "추상적인 말보다는 피해·가해학생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도입, 언제 누구라도 다가설 수 있는 오픈, 누나, 아저씨, 아줌마 같은 '감성 경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까지 "패널들이 반성해야 할 것 같다"고 방청객의 지적을 수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정모(45)씨는 "지금 밟아지고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당장 개혁이 되면 실사해야 할 프로그램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데 여전히 타당공론만 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2월 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